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 3:1,4)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이 곳 캄보디아는 길었던 우기가 끝났습니다. 우기가 끝난 것을 기념하며 ‘본옴독’이라는 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쫄츠남’, ‘프츨뵤’과 더불어 캄보디아의 3대 명절로 꼽히는 이 기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이 긴 배를 노 저으며 툰레삽 강에서 경주를 벌였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고단한 삶 가운데 모처럼 여유를 가졌습니다.形形色색 꾸며진 배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강가에 쭈그려 앉아 피곤한 얼굴로 물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이 무엇인지 상기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소리 높여 외쳐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은 이야기

학생센터이전과 새 학기 사역

소노코(캄보디아 IVF 기독학생회) 학생센터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인근 공사로 환경이 좋지 않았고, 집이 오래 된지라 천정과 바닥에서 누수도 심했습니다. 전부터 이사를 계획하던 중에 근처에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억이 쌓였던 옛 건물을 떠나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쫄란 간사와 학생시절부터 추억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이사를 도우며 서로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

새 학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부터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로 캠퍼스가 북적입니다. 대학 내 오토바이 주차장마다 오토바이가 겹겹이 가득 늘어난 진풍경을 봅니다. 소노코는 개강 모임을 새로운 학생 센터에서 가진 이후로 매주 토요일 전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교실 및 영어교실 등을 통해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프놈펜 5개 캠퍼스에서 각각 소그룹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지만, 모임마다 새로운 활기가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학생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끌고 캠퍼스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도전하는 일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더 많은 신입생들과 접촉하고, 이들이 소그룹에 연결될 수 있도록, 모임마다 학생 리더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옴독 축제, 강변에 모인 사람들



소노코 학생센터 이사하던 날



새 학기 개강모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모임에서 공동체가 함께 전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일하시는 경륜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소노코 공동체에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를 시작하고 계심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이웃

저희 가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노코 간사들과 더불어 살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집을 구하느라 한 달여 아내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일일이 방문해보고 기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더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집을 찾고 집 주인과 계약이 끝날 무렵, 주인집 아내가 신당을 치울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신당을 두고 지극히 섬기며, 신당에 모신 귀신들이 집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당을 치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보호해주시며, 저도 집주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부딪힘 속에서 며칠을 기도하고, 결국 신당은 치워졌지만, 더 나아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가 임하기를, 좋은 관계를 시작한 이웃들과 예수님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리더십을 위한 기도

IFES 동아시아 총무회의가 캄보디아에서 있었습니다. 각국 기독교학생회 총무님들의 방문과 격려가 소노코 간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쯔란 간사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였는데, 많은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익사 사고로 동역자를 잃는 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동아시아 대표 아넷 총무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천국에서 아들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쯔란 간사의 아버지도 아들이 꿈꾸고 섬겼던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구성될 소노코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프놈펜왕립대학(RUPP) 소그룹모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쯔란 간사의 죽음 이후 공석이었던 프놈펜 대표 간사직(Branch Leader)을 페레약 간사가 맡았습니다. 슬픔을 딛고 부르심 가운데 엎드리고 있는 형제는 여호수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페레약 간사가 견고히 서고, 부르심 가운데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닷과 사오피어, 현지 간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페레약 간사

저희 부부도 오엠에프 리더십과 인터뷰를 하고 공식적으로 학생 사역에 배정되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소노코 학생 사역은 아직 개척 단계에 있지만, 이미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눈물과 기도로 씨를 뿌렸습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부르심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떨림이 있습니다. 기

도만큼 더 중요한 사역이 없음을 깨달으며 더욱 더 깊이 중보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주 이야기

캄보디아에서의 일 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초임 선교사 가정의 시작을 신실하게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동역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기도 덕분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한 집이 아이들 학교와 가깝고, 공사소음도 없고 공사장으로부터 날아오는 먼지와 돌들도 없습니다. 이제 창문도 열 수 있고, 집에 물도 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들이지만 저희에게는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캄보디아인 이웃들과 음식들을 나누며 교제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생 소노코 사역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6년간 섬겼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던 시간 들을 지나왔는데 다시 젊은 대학생들과 마주하려니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막연함이 밀려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 겸손히 물으며 섬겨야할 자리를 기도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소노코 자매 간사들과 모임



의진이와 하진이

아이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먼지 알려지가 있는 의진이는 비염이 오래가는 듯합니다. 먼지가 많은 캄보디아에서 먼지 알려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진이에게 면역력이 생겨서 비염을 이겨내고, 천식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진이는 감사히 학교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고, 집에서 한글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와 카톡을 주고받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아이들 모두 한국을 그리워하고 친척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그리움들을 주님께서 보듬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감사제목

1. 캄보디아에서의 첫 한 해를 말씀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
2. 일 년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의 믿음이 꾸준히 자라게 하심을 감사.
3. 현지 학생 사역으로 공식 배정 받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좋은 동역관계를 주심을 감사.
3. 이사할 집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케 하심을 감사.

기도제목

1. 거룩히 깨어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이 커지도록.
2. 언어 수업과 사역을 병행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꾸준한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3. 매일 오토바이로 오랜 시간 이동하는데 안전과 체력을 지켜 주시도록.
4. 소노코 학생 사역을 겸손히 배우며 중보하고, 구체적으로 섬길 바를 분별하도록.
5. 이사 후 양여주 선교사 팔 통증이 계속 있는데 잘 나아 수 있도록, 의진이가 알려지 비염으로 잠을 잘 못 이루는데 치료될 수 있도록, 하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교생활을 잘 해 갈 수 있도록.

학생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1. 소노코 기독교학생운동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2. 현지 간사들(페레악,눗,사오피어/시나)을 영육간에 보호해주시고, 프놈펜 학생 사역을 이끌게 된 페레악 간사에게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도록.
3. 캠퍼스 내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이 성장하고, 헌신된 학생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4. 크리스마스 모임(12월 21일/RUPP 캠퍼스, 1월 13일/전체 모임)을 통해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도록.
5. 학생 사역자 회의(1월 4-7일)를 통해 프놈펜과 시엠립의 동역자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 하심을 듣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6. 소노코 사역 총무로 리더십 역할을 해 온 스테파니(미국 IVF)간사가 내년 초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제목

1. 32년간 권력을 가져 온 훈센 총리가 내년 총선을 두고 집권 연장을 위해 제1야당 대표를 체포하고 당을 해산시키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어둡고 불안한 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하여 주시도록.
2. '미션캄푸치아2021 기도운동'에 따르면 행정구역으로 나뉜 캄보디아 전체 14,073개 마을 중 11,000개 이상 마을에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데, 소외되고 낙후된 이 지역들에 복음을 전하고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캄보디아 교회들이 복음 전파에 하나가 되도록.